

“자녀의 잠재된 영재성 미리 발견하세요”

3년만에 '와이즈교육' 3대 논술 브랜드로 키운 황규동 대표

세계 첫 신문형식 논술 '와이즈 위클리'를 늘이+손 저극 통해 '씽킹트레인' 훈련 자기주도학습 기본...창의력에 큰 도움

2013년 6월 세계 최초로 신문형식의 독서논술교재인 '와이즈 위클리'를 론칭해 국내 논술교육계에 돌풍을 일으키며 3년 만에 3대 논술 브랜드로 급성장한 (주)와이즈교육이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

유아의 창의적 사고를 위한 두뇌훈련 프로그램이다. 2년 여의 연구 끝에 선보인 이 프로그램은 '씽킹트레인'으로 명명됐다. 창의력 교구 '와이즈 블럭'과 독서논술교재 '와이즈 위클리'를 통해 쌓아 온 와이즈교육의 전문적 역량과 연구개발비가 아낌없이 투입돼 탄생했다.

서울 등촌동의 와이즈교육 사옥에서 만난 황규동(51) 대표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와이즈교육은 지난 2003년부터 창의력 교구인 와이즈 블럭을 개발해 보급하면서 어린이 창의성 개발과 교수법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 왔다. 특히 0~6세 연령의 아이들이 가장 왕성한 호기심을 갖

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훈련을 통해 뇌에 자극을 줌으로써 잠재된 영재성을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다.”

동물의 뇌는 태어날 때 이미 80~90%가 완성되어 있지만 인간의 뇌는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발달한다. 이 시기에 뇌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가장 좋은 것은 손의 자극이다. 아이들에게 블럭과 같은 장난감을 쥐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씽킹트레인은 놀이와 자극(학습)이 결합된 두뇌훈련 프로그램이다.

황 대표가 다투듯처럼 생긴 기묘한 물건을 보여 주었다. ‘자석 생각판’이라고 부르는 원반이다. 생각판 위에는 역시 둥근 모양의 위크시트가 올려진다. 시트에는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재미있는 그림과 글자가 적혀 있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씽킹트레인의 핵심이다.

문제의 답을 찾아 색색의 ‘생각막대’를 올려놓으면 된다. 마치 놀이를 하듯 아이들은 위크시트의 문제를 풀며 자연스럽게 뇌의 자극을 얻게 된다.

황 대표가 위크시트 한 장을 올려놓고

는 “한 번 풀어보세요”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다. 정답을 맞추자 황 대표가 웃었다. “5세를 통과하셨습니다.”

●인지능력진단으로 두뇌의 고른 발달을 위한 과학적 교육설계

씽킹트레인은 자석 생각판 2종, 위크시트 4세트(총 484장), 기억력 카드, 교육 지침서, 바인더로 구성되어 있다. 3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뿌리단계, 지니 1~3단계까지 총 4단계가 코스이다. 4단계는 한꺼번에 구매(28만6000원)할 수도 있고, 단계마다 따로 구매할 수도 있다.

황 대표는 “씽킹트레인의 진정한 강점은 두뇌를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인간의 두뇌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분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논리력, 공간력, 협응력, 구성력, 통찰력 등 다양하다.

“씽킹트레인을 활용하기에 앞서 유아의 영역별 인지 능력 진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결과를 통해 유아의 취약한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설계를 하게 된다.”

황 대표는 씽킹트레인의 또 다른 장점으로 아이가 스스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다는 점을 꼽았다. 문제를 풀 뒤 위크시트를 뒤집으면 바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개입없이 아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다. 황 대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기본이 형성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씽킹트레인의 교육방법은 이미 미국, 독일 등에서 검증이 된 방법이다. 교구의 디자인과 품질을 높이고 콘텐츠를 한국화해 새롭게 태어난 것이 씽킹트레인이다.

황 대표는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창의력을 훈련하는 데에는 논술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다.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일 때부터 일명 ‘SKY’로 불리는 명문대 입학에 염두에 둔 논술과 토론학습에 관심이 높다”며 “주간 학습지 형태의 와이즈 위클리로 통합교과형 독서논술토론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두뇌의 고른 발달을 유도해 논술과 토론에 유익한 종합적 사고력, 판단력을 키워주는 것이 씽킹트레인이다”라고 말했다.

씽킹트레인은 부모가 직접 지도해도 되지만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월 5만원의 부담없는 교육비로 전문교사를 통한 홈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양명호 기자 ranbi@donga.com



세계 최초 신문형식 독서논술교재 '와이즈 위클리'로 3년 만에 국내 3대 논술 브랜드로 급성장한 (주)와이즈교육의 황규동(51) 대표가 유아의 창의적 사고를 위한 두뇌훈련 프로그램 '씽킹트레인'으로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 씽킹트레인의 '자석 생각판'을 들고 포즈를 취한 황규동 대표. 김민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국민은행 'ISA 바이럴 영상' 4주만에 온라인 600만뷰

'한방에 키워라'편 김연아 광고 효과

KB국민은행은 14일 배포한 KB국민 만능 ISA 바이럴 영상인 <김연아 '한방에 키워라'편>이 4주 만에 600만뷰(유튜브 320만·페이스북 157만·판도라 129만)를 돌파하는 등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바이럴을 활용한 상품광고를 시도하고 있다. 계좌이동제에 맞춰 지난해 10월 선보인 'KB ONE 컬렉션'은 550만뷰, 올 2월 이승기 입대 전 실재 이별하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대한민국 남자의 15,360시간'이 380만뷰를 기록했다.

이번 '한방에 키워라'편은 앞선 두바이 영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케이블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일 일일형 ISA 출시에 맞춰 편집한 영상은 5월



배우 4주 만에 600만뷰를 돌파하며 화제를 불러 모은 KB국민은행의 만능 ISA 바이럴 영상인 <김연아 '한방에 키워라'편>.

사진제공 | KB국민은행

부터 극장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영상 이 지난 달 14일 출시된 신타형 ISA와

이달 11일 출시된 일일형 ISA에 대한 고객의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KB국민 만능 ISA를 통해

KB국민은행과 고객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고객만족·직원만족·지속가능 목표...3대 비전 제시

BMW 그룹 코리아 미래 20년 행사 김효준 사장 “더 나은 환경 만들 것”

BMW 그룹 코리아가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8개 공식 딜러사 임직원 약 750명이 참석한 가운데 'BMW 그룹 코리아 미래 20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BMW 그룹 코리아가 딜러사 임직원들과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리테일 환경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한 자리다.

이날 BMW 그룹 코리아와 딜러사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투명한 견적서 발행, 고객에게 거래세부정보 제공, 차종별 세일즈 컨설턴트 최소인센티브 보장 프로그램, 전가보장형 금융상품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고객에게 신차 견적과 가격 구성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일즈 컨설턴트에게는 동기부여와 성취감이 주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BMW 그룹 코리아는 BMW 공식 인증 영업 직원 제도 개선, 체계적인 교육



BMW 그룹 코리아 김효준 사장이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BMW 그룹 코리아 미래 20년' 행사에서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BMW코리아

제공 및 딜러네트워크 중심의 영업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영업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더욱 높은 퀄리티로 응대할 수 있는 선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BMW 그룹 코리아 김효준 사장은

“미래 20년을 위해 더 나은 수입차 판매 환경을 만드는 것은 딜러사와 함께 고객만족, 직원만족, 지속가능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LG 시그니처' 체험존 4배 더 전국 160개 이상 매장으로 확대

LG전자가 초프리미엄 가전 'LG시그니처' 체험존을 4배 규모로 늘린다. LG전자는 전국 40여 매장에서 운영 중인 시그니처 체험존을 상반기까지 16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말 시그니처를 국내에 출시하고 주요 백화점과 LG베스트샵을 비롯해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에 전용 체험존을 구축해왔다. 체험존을 방문하는 소비자는 뛰어난 성능과 정제된 디자인, 직관적 사용성을 갖춘 초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경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일부 매장에서 VIP 고객을 초청해 시그니처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LG전자는 판매와 배송, 설치, 사후서비스 등 각 분야별 명장들로 구성된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5월 말까지 올레드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시그니처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 제품에 따라 로봇청소기, 와인셀러, 안마의자 등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김명근 기자

공정위 “이케아 배송·조립, 환불 가능”

서비스 취소·환불금지 조항 시정 권고 “불공정 약관 시정...소비자 권리 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케아코리아는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이전까지는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고, 선지급한 비용도 일체 환불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약관 시정으로 취소가 가능하고 환불도 받을 수 있다. 배송의 경

우 배송 완료 이전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는 이미 발생한 운송비 및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조립의 경우는 조립 완료 이전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시에는 서비스 요금 중 취소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 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취소 및 환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거래분야 및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donga.com



구글플레이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요금 청구할인이나 쿠폰 등의 혜택을 주는 애플리케이션 '기가지프트 for KT'. 사진제공 | KT

KT, 구글 손잡고 '기가지프트 앱' 출시

내달 31일까지 요금할인·경품 이벤트

KT는 구글과 함께 '기가지프트 for KT'를 출시했다.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게임과 같은 콘텐츠를 구매할 때 요금 청구할인이나 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다. 앱의 가격은 100원. KT와 구글은 앱 출시를 기념해 5월31일까지 통신 요금 할인 및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앱을 KT 결제로 다운로드한 고객들은 별도 응모절차없이 2000원 통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구매 고객 중 지난 2개월 간 구글플레이에서 KT결제 이력이 있을 경우 통신 요금 할인을 지원한다.

KT는 또 '넥서스5X', '갤럭시S7' 등 최신 스마트폰과 최대 5만원까지 통신 요금 자동할인과 같은 경품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벤트'를 진행한다. 넷마블과 공동으로 모바일게임 '레이븐'에서 사용 가능한 3만원 상당의 아이템 쿠폰을 모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펼친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